

2008년 4월 일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운영위원회간사	운영위원장	의 장

의원공람		
부의장	김 종 덕	
내무위원장	조 호 연	
산업건설위원장	문 을 주	
의원	윤 재 호	
의원	이 창 균	
의원	허 홍 구	
의원	박 우 근	
의원	박 수 남	

합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 개요

1. 여 행 국 : 필리핀
2. 여행목적 : 필리핀 시청 및 IRRI(국제미작연구소)를 방문하여 농업 및 관광정책 등의 운영사례를 분석·검토하여 장점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
3. 여행기간 : 2008. 3. 17~ 2008. 3. 22(5박6일)
4. 보고서 작성자 및 여행자 인적 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역할	비고
합천군 의회	의 장	유도재	연수단 대표	
	부의장	김종덕	연수일정 운영	
	운영위원장	김학구	자료 분석 및 검토	문화관광
	내무위원장	조호연	자료 분석 및 검토	문화관광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자료 분석 및 검토	농업정책
	의 원	윤재호	자료 분석 및 검토	농업정책
	의 원	이창균	자료 분석 및 검토	농업정책
	의 원	허홍구	자료 분석 및 검토	문화관광
	의 원	박우근	자료 분석 및 검토	농업정책
	의 원	박수남	자료 분석 및 검토	문화관광
	의 원	박현주	자료 분석 및 검토	문화관광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홍검식	자료 수집	
	전문위원	이진국	자료 수집	
	직 원	한호상	촬영, 기록	
	직 원	김수영	촬영, 자료정리	

- 목 차 -

I. 서론

1. 연수의 필요성 및 배경	1
2. 연수 세부일정	2
3. 필리핀 국가 개요	3
-기본 개요	3
-사회 부분	4
-외교 부분	7
-정치 부분	10
-경제 부분	14
-한국-필리핀 관계	16
-메트로 마닐라	20

II. 본론

1. IRRI(국제 쌀 연구소)	23
2. 국제곡물시장의 이해	26
3. 필리핀의 토지개혁과 토지소유의 특징-한국과의 비교-	27
4. 한국농업의 현실	30
5. 마닐라·세부시 문화 관광 자원	32

III. 결론

1. 한국 농업의 위기와 대처방안 연구	37
2. 관광자원의 활성화 방안 연구	39

I. 서론

1. 연수의 필요성 및 배경

<농업분야>

세계 곡물가격 파동이 식량자급 자족률이 부족한 국가일수록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하겠으며, 농업이 1차적 기본산업이지만 인간생명을 존속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농업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 농촌도 2020년도에는 농업인구가 3%대에 진입할 것이라 예상되면서도, 근간의 농산물수입개방으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한국농업이 붕괴위기에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농업의 다양성과 경쟁력 확보는 필히 갖추어야 하는 전제적 목표라 생각되며,

이러한 배경에서 지리적 · 기후적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필리핀 농업에 대한 현장체험 및 성공사례를 연구하고, 식량자급률이 30%미만이고, 쌀을 제외하면 식량자급률이 5%에 불과한 한국이 식량을 지속적으로 수입하여 경제를 유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감에서 (지난 2년간 곡물가가 2배이상 상승) IRRI(국제 쌀 연구소)의 국제기관 방문으로 미래지향적 농업에 대한 자료 수집과 농업의 현장견문을 넓히고자 한다.

<관광산업분야>

지방자치단체시대에서 지방재정여건상 관광산업의 부흥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우리군 역시 보유한 관광자원을 얼마나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은 군정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한국은 90년대 이후부터 관광수지 적자와 외래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관광객이 국내보다 해외를 선호하는 이유가 뒤쳐진 국내관광산업에서 비롯된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고, 관광자원의 적극적인 활용과 차별화된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실로 절실한 현 상황에서 비록 정치적, 경제적으로 신흥경제개발국 정도의 위치이지만 관광산업분야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필리핀의 관광산업의 실체를 체험 및 연구하고자 한다.

2. 연수 세부일정

연수지 : 필리핀 (마닐라 / 세부)					
날 짜 DATE	지 역 PLACE	교통편 TRANS	시 간 TIME	일 정 ITINERARY	식 사 MEAL
제1일 3/17 월요일	인 천 마닐라	PR 469	18:00 20:20 23:45	인천영종도 국제공항3층 집결 인천 출발, 마닐라 향발 마닐라 도착 후 가이드 미팅 및 호텔로 이동 호텔 체크인 후 투숙	석:기내식
				HOTEL :	
제2일 3/18 화요일	마닐라	전용 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오전 : 팍상한 관광산업 체험 현지식으로 중식 후 오후 : IRRI(국제 쌀 연구소)방문 석식 후 호텔 투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HOTEL :	
제3일 3/19 수요일	마닐라	PR849	전일	호텔 조식 후 오전 : 마닐라 시청 방문 중식 후 필리핀 독립의 아버지 호세 리잘을 기념하는 리잘공원 및 스페인 식민지 잔재인 산티아고 요새 시찰 석식 후 호텔 투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HOTEL :	
제4일 3/20 목요일	마닐라 세 부	PR866	전일	호텔 조식 후 오전 따가이따이 관광자원 시찰 중식 후 공항으로 이동 세부시 도착 석식 후 호텔 투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HOTEL :	
제5일 3/21 금요일	세 부	전용 버스	전일	호텔 조식 후 세부 관광지 조성현장 방문 - 관광지 형태 및 제반 시설 견학 연수내용에 대한 종합강평 실시 (자체 일정) 석식 후 호텔 투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HOTEL :	
제6일 3/22 토요일	세 부 마닐라 부 산	PR416	04:00 09:00 14:00 18:40	공항으로 이동 마닐라 시내 견학 -마젤란의 십자가, 성어거스틴교회 등 관광지 형태 견학 마닐라 출발, 부산 향발 부산 도착 후 해산	조:기내식

3. 필리핀 국가 개요

□ 기본개요

- 국명 : 필리핀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 정부형태 : 대통령제, 6년 단임
- 의회 : 상.하 양원제
 - 상원 24석 이내(임기 6년), 하원 250석 이내(임기 3년)
- 군대 : 11만 4천명
 - 육군 7만7천명, 해군 2만 2천명, 공군 1만 5천명
- 면적 : 300,400 km² (한반도의 1.3배)
 - 7,107개 도서로 구성, 전체의 65%가 산악지대
 - 루손(104,688km²)과 민다나오(101,999km²) 섬이 총면적의 65% 차지
- 기후 :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기후(연평균 27°C)
 - 건기(12~4월)와 우기(5~11월)
 - 태풍, 지진, 화산포발 등 자연재해 빈발
- 1인당 GDP(2006년) : \$1,297(GDP: 1,115억불)
- 경제성장률(2006년) : 5.4%(실질 GDP 성장률)
- 교역(2006년) : \$985억불(수출 \$470억불, 수입 \$515억불)
- 환율 : 1US\$ = 40.40페소(2008.2월 기준)
- 인구(2006년) : 8,697만명 - 인구증가율 : 1.95%
- 평균수명 : 남자 66.9세, 여자 72.2세
- 인종 : 말레이계가 주종이며 중국, 미국, 스페인계 혼혈 다수
- 종교 : 카톨릭(83%), 신교(9%), 회교(5%), 불교 및 기타(3%)
- 주요언어 : 영어 및 따갈로그어(Tagalog)
- 외세지배 : 스페인(327년간, 1571~1898), 미국(44년간, 1898~1942),
일본(3년간, 1942~1945)
 - 2차 대전후 1945년부터 미국의 식민 통치하에 있다가 1946년 7월 4일 정식 독립
 - 독립기념일은 1898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6월 12일

□ 사회 부분

1. 치안

가. 열악한 치안환경

- 극심한 빈부격차와 빈곤, 총기류 및 마약에 대한 방만한 관리, 정부 공권력의 통제 능력 부족 등으로 납치강도 등 각종 강력범죄가 만연하고 이슬람, 공산반군 등에 의한 각종 테러도 빈발, 치안상황이 극히 열악
- 범죄조직에 의한 납치 강도 (kidnap-for-ransom)가 2000년도 324건, 2001년 302건, 2003년 264건, 2004년 156건으로 최근들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납치강도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2005년)
- 아로요 정부는 범죄척결과 치안확보를 중요 국가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치안은 불안한 상황임.

2. 교육

가. 역사

- 필리핀 최초의 대학은 1611년 설립된 산토 토마스(Santos Tomas) 대학이며,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는 성직자들에 의한 종교교육 위주로 시행
- 1898년 스페인으로부터 영유권을 이어받은 미국은 필리핀 인에 대한 교육보급에 노력하여 공립 초중등학교를 정비하고 1908년 필리핀국립대학 설립
- 1946년에 완전독립을 달성한 필리핀은 1935년 헌법을 기반으로 민족주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영어와 Tagalog어를 공용어로 하는 독자적인 교육 추진

나. 학제

- 필리핀의 학제는 초등학교 6(7)년, 중등학교 4년, 대학교 4년이 기본(초등학교 6년은 의무교육)
-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6세이며,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중등교육 수료후 전국적인 예비고사와 각 대학의 입학시험 합격 필요

※학교수(2005)

- 초등학교 : 41,688 - 중등학교 : 8,091 - 대학교(전문학교포함) : 1,787

다. 특징

- 중등교육까지는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수학할 수 있어 개발도상국 중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문자해독율: 95%)
- 초등학교 진학률 : 97%
- 중등학교 진학률 : 73%
- 1,185개의 4년제 정규대학이 있으며, 대학 재학생수는 240만명이고 이중 85%가 사립대학에 재학.(연간 대학졸업자수는 약 35만명)
- 대학생의 40% 정도가 마닐라 소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어 지역간 교육 격차가 심각

3.종교

가. 지역별 분포

- 필리핀의 종교문화권은 Luzon을 중심으로 한 카톨릭(83%) 및 신교(9%)의 기독교 문화권, Mindanao섬을 중심으로 한 회교(5%) 문화권, 그리고 북부 내륙 고지대의 애니미즘 (Animism) 문화권으로 대별

나. 역사

- 카톨릭은 1521년 마젤란이 내왕했을 때 최초로 전래되었으나 본격적으로 포교된 것은 16세기 후반. 초기에는 주민의 카톨릭화가 용이하지 않았으나 17세기 중반경부터 카톨릭이 주민들 사이에 정착되기 시작
- 신교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미국 스페인 전쟁 때로 미국은 1899년 이후 필리핀 내 신교 포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카톨릭 교회의 지침으로 금지되어 있던 성서를 각 언어로 번역하고, 교육 및 의료 분야 등에 적극 진출
- 이슬람교도는 인구의 5%이며 주로 민다나오지역에 집중. 1380년경 Sulu군도를 시작으로 민다나오 섬에 전파되고 16세기 후반 루손 남부지역까지 세력이 확장되기도 하였으나 스페인의 카톨릭화 정책으로 현재는 민다나오 지역에만 세력 유지

4.노동

가. 기본정책

- 필리핀 정부는 노동자 보호, 완전고용 촉진, 평등한 고용 기회 보장, 노동단체 구성권과 단체협상 보장, 인간적인 노동조건 보장 등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
- 노동법은 1974년에 제정된 Labor Code를 중심으로 기존의 관계 법령을 종합

나. 노조활동

- 최근 노조활동은 90년대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 한정
- 노사분건수가 1990년 183건에서 2004년 25건으로 감소
- 개별노조는 2004년 기준 15,193개, 가입자 수는 약 12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73만명 (60%)이 메트로 마닐라에 집중
- 필리핀 3대 노조연합은 "필리핀 노동조합 회의 TUCP," "노동절 운동 KMU, 자유농 연합 FFF이며, 노동조합 수는 약 5700여개로 추산
- 필리핀 노조연합의 양대 단체는 "필리핀 노동조합 회의(TUCP)"와 "노동절 운동(KMU)"인 바, TUCP는 1974년에 결성된 최대 노조연합 단체로서 온건 노선인 반면, 급진적 노선의 KMU는 정부와 대립하면서 TUCP와도 불화 야기

다. 최저임금

- 최저임금은 노동.고용부의 지역 책임자(Regional Director)가 의장이 되고 경제개발청과 상공부 책임자가 부의장이 되며 고용자 측과 피고용자 측 대표자로 구성되는 지역별 지역임금위원회(Regional Wage Board)가 결정
- 최저임금 수준은 각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메트로 마닐라의 경우 명목 최저임금은 1일 325페소 (2005.10.26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5.보건복지

가. 주요시책

- 보건 및 복지정책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사회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에서 관장
-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 프로그램으로 기초건강관리 프로그램, 임산부와 어린이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결핵관리 프로그램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의약

- 품의 품질을 높이고 약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의약품 개발프로그램 마련
- 또한 빈곤층의 복지증진, 여성과 아동의 복지증진, 장애자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나. 의료인력 및 시설현황

- 정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의사 및 간호원을 포함한 정부 의료인들의 수는 크게 부족하며 병원 및 병상 수 등 의료 인프라는 열악한 수준
- 병원수 : 약 1,600여개 (병상 수 70,000여개)
- 의료인력 : 의사 2,943명, 치과의사 1,943명, 간호사 4,724명, 기타 16,451명

6.언론

- 가. 개요 : 언론계는 1986.2월 혁명 후 전면 개편이 이루어져 Marcos 정권당시 폐간 또는 정간되었던 언론사가 복간되고 새로운 언론사가 창설되는 등 자유언론을 구가하고 있으나, 신뢰도가 낮고 무책임함.

□ 외교 부분

1.기본 외교정책

- 가. 양자 · 다자 협력을 통한 국가안보 제고

※ 군사력의 열세를 외교력으로 보완

- 나.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외교 강화

- 다. 필리핀해외근로자의 권익 보호

2. 주요국가와의 관계

- 가. 미국과의 관계

-대미관계는 필리핀 안보의 기본축

-미국의 역내 군사, 정치, 경제적 존재가 지역안보에 긴요하다고 인식

-1992.11월말 미군이 철수하였으나 아·태 지역 내 미국의존재가 지역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미국과의 안보협력관계 유지·강화에 주력

※ 필.미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1951)이 양국 안보관계의 근간이며 필.미 방문군지위협정(VFA: Visting Forces Agreement 1999) 체결로 미국의 원격안보지원 및 양국간 연합훈련의 법적 기반 마련

※ 미국의 대필리핀 군사원조 6,218만불(2004)

-미국은 필리핀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며 일본에 이어 제2위 투자국

※ 교역량(2004) : 136.6억불(수출: 70.8억불, 수입: 65.8억불)

※ 투자(2004년 기준 누계) : 35.6억불

-USAID의 개발원조액은 지난 40년간 50억불 이상(2004년도 1억 230만불)

-미국에는 300만명의 필리핀인이, 필리핀에는 10만명의 미국인이 체류(2006년에는 필리핀인 미국이주 100주년 기념식 개최예정)

나. 일본과의 관계

- 일본은 필리핀의 제1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국, 제2위의 교역상대국이며 1996년 이래 최대 투자국

- 특히 필리핀의 대외원조(ODA) 수원총액의 51%이상을 제공하는 등의 외교노력을 통해 2차대전시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

- 이에 따라 필리핀은 잠재적으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일 안보동맹 틀 내에서 일본의 군사 역할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

- Arroyo대통령의 방일(2001.1월 취임이후 2002.12월 국민방문 포함 4회) 및 고이즈미 총리의 필리핀 방문(2002.1월)등 긴밀한 관계 유지

- 2006.9월 필리핀 양국은 FTA를 포함하는 경제동반자협정(EPA)에 서명하였으며, 현재 비준절차 진행중

- 교역규모(2004) : 154억불 (일본의 수출 79억불, 필리핀의 수출 75억불)

- 일본의 대필리핀 투자 37.3억불 (2004년기준 누계)

다. 중국과의 관계

- 사회주의 제국과의 선린정책에 따라 베트남 공산화 직후인 1975.6월 대중관계 정상화

- 간헐적으로 표면화되는 남사군도(Spratly Islands)의 영유권 문제가 필.중관계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었으나, 2005.8월 공동채굴 합의 등으로 원만한 해결

가능성 시사

- 교역량(2004): 52억불(수출 27억불, 수입 25억불)

3. 남사군도(Spratly Islands) 영유권 문제

가.배경

- 남중국해 보르네오 북쪽에 위치한 44개 도서와 400여개 산호초로 구성된 남사군도(Spratly Islands, 해역22만km²)에 대해 베트남, 필리핀,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영유권 주장(지리적으로는 필리핀이 가장 인접)
- 남사군도에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유엔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조사 보고가 동 영유권 분쟁을 촉발
- 중국과 베트남은 두 차례(1974.1월 및 1988.3월)무력 충돌을 벌였으며, 영유권 주장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자국 군대를 남사군도에 파견하여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을 항해하는 분쟁 당사국의 어선을 나포
- ASEAN은 1998년 하노이 행동계획 등 수차례의 비구속적 선언을 통해 남사군도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나. 필리핀의 영유권 주장 및 행사

- 필리핀 영유권주장의 주된 근거는 인접성(남사군도가 필리핀의 200해리 경제수역내에 포함된다는 주장)
- 필리핀은 남사군도의 Pagasa섬 등 8개 도서에 군대(60-70명)를 주둔시키고 분쟁해역을 순찰. 그러나 해군력의 한계로 Pagasa섬 이외의 도서에 대한 군대 파견은 상징적 수준에 불과

다. 필리핀 중국 간 분쟁

- 중국이 1994년말부터 Mischief Reef(산호도)에 어민 대피소 명목의 시설물을 설치함에 따라 필-중간 분쟁 표면화, 동 필-중 1차분쟁은 1995.8월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분쟁해역의 평화 건설적 사용에 합의한 필-중 공동성명 채택

으로 일단락

- 1998.10월 중국이 Mischief Reef에 군대를 파견, 시설물을 증축함에 따라 분쟁이 재연되었으며, 양자 및 다자적 외교노력에도 불구하고 돌파구 마련에 실패
- 필리핀은 중국과의 양자차원의 해결에 부담을 느끼고 ASEAN등 다자차원에서 접근을 시도
- 2002.11월 캄보디아 ASEAN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행동 규범(Code of Conduct)이 채택됨으로써 동 문제의 다자적 접근에 진전 이룩
- 2005.7월 중-ASEAN간 동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기구 설치 합의
- 2005.8월 중국석유회사는 필리핀, 베트남 석유회사와 공동 채굴계약 체결

□ 정치 부분

1. 행정부

가. 대통령

- ① 피선 자격 : 필리핀 태생 시민으로 최소 40세 이상 선거직전 기준 국내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
- ② 선출 방법 :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
- ③ 임기 : 6년 단임
- ④ 유고시 권한승계 및 대행 : 부통령이 잔여임기 승계
-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 유고시에는 상원의장, 하원의장 순으로 승계하되 보궐선거시까지 대행

나. 부통령

- ① 피선거격 : 대통령 피선거격과 동일
- ② 임기 : 대통령 임기와 동일(6년), 1차 중임 가능
- ③ 부통령 유고시 대통령이 상-하원 의원중에서 지명 (상-하원 의원 과반수의 인준 필요)

다. 내각

- ① 대통령이 임명하되, 의회 인준위원회의 동의 필요

라. 옴부즈맨(Ombudsman)

- 헌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관
- 옴부즈 총감(Ombudsman), 옴부즈 수석차감(Overall Deputy Ombudsman)과 각 지역담당(Luzon, Visayas, Mindanao)
- 및 기능분야(군대) 담당 옴부즈 차감 등으로 구성
- * 현 옴부즈총감은 Merceditas N. Gutierrez
-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7년 단임
- 정부관리들의 독직·부패(Graft and Corruption)를 조사하여 형사, 민사, 행정 소추 시행
- 정부내 비효율성과 독직부패의 원인을 조사하여 개선책 권고
- 상주 옴부즈맨(Resident Ombudsman)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내에서 옴부즈맨의 역할 대행
- 수도권 정부기관내의 상주 옴부즈맨은 옴부즈 총감이 임명
- 지방정부기관내의 상주 옴부즈맨은 해당지역 옴부즈 차감이 임명

2. 사법부

가. 대법원(Supreme Court)

- 대법원장 및 14명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
- * 현 대법원장은 Reynato S. Puno
- 대법원판사는 필리핀 태생의 4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 조약, 법률, 행정명령 및 사형 선고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
- 모든 결정은 10명 이상의 대법관 동의 필요

나. 고등법원(Court of Appeals)

- 고등법원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50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1개의 고등법원을 수도에 유지
- 구속적부심, 영장발급, 지방법원의 판결 심사

다. 기타 : 지방법원 및 특별법원

3. 의회 가. 정당

1) 역사 및 특징

① 역사

- 1946년 독립후 국민당(Nationalist Party)과 자유당 (Liberal Party)의 양당체제가 구축되었으나, 20여년 (1965-86)에 걸친 Marcos대통령의 장기 집권과정에서 전통정당이 몰락하고 정당제도 자체가 의미 상실
- 1986년 Aquino 정부 출범이후 선거 등 필요에 따라 정당이 급조되고 정치인 개인의 이해나 친소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는 등 정당정치의 기반 미 확립
- 현재 80여개의 정당이 난립

① 특징

- 정당정치의 기반 취약 : 정당은 선거나 정국 운영에 있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유력 인물 중심으로 운영
 - '인물 정당'의 성격('old boys club') :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 소수 유력 인물(가문)은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정치 및 사회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 행사.따라서 정강정책 중심의 '정책 정당'이 아닌 유력 인물 (가문)을 중심으로 한 '인물 정당'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당간 정책노선에 차이 별무
 - 인기투표 양상 : 각종 선거가 정책 대결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지명도, 인기 등에 의해 판가름 나는 양상
 - * Estrada 전대통령은 개인적 인기를 기반으로 대통령에까지 당선되었으며, 국회의원, 주지사 등에 영화배우, 방송인, 운동선수 출신 다수 포진
 - 빈번한 이합집산 : 정당별 정책노선 차이가 없어 필요에 따른 정당간 이합집산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 약하여 소속정당 교체도 빈번
 - * 특히 상원은 소속 정당이 아닌 의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여-야로 구분되며, 하원 역시 대부분 당적에 관계없이 여권에 합류하는 경향
- 2) 여권 : 2007.5.10 선거시 Lakas-CMD, LP, NPC, KAMPI, NP, PDSP 등의 정당이 'Team Unity' 연합을 구성

나. 상원

① 개요

- 필리핀 상원은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35세이상의 입후보자 중에서 득표순으로 선출된 24명으로 구성
- (현 상원의원수 : 23)
- 매 3년마다 12명씩 개선
- 임기는 6년이며 1차 중임만 허용

② 주요권한

- 법률안 제안, 심의 및 의결
- 대통령 및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사 결정권
- 계엄령의 연장 및 취소
- 선전포고 동의
- 조약 체결 및 사면에 동의

③ 구성

- 상원의장(President):Manny Villar(NP)
- 상원부의장(President Pro Temporo):Jinggoy Ejercito Estrada(PMP)
- 여당원내총무(Majority Floor Leader):Francis Pangilian(LP)
- 여당그룹(Majority Group)

다. 하원

① 개요

- 25세 이상의 입후보자에게 피선거권 부여
- 소선거구제에 입각한 1선거구 1인 선출(1선거구는 인구 25만명 기준), 지역구 210명과 소수정당대표 및 직능대표 등 총 250명 이내로 구성(현 하원의원수 : 236)
- 대통령이 50명까지 직능대표 임명 가능
- 임기는 3년이며, 2차 중임까지 허용

② 주요권한

- 법률안의 제안, 심의 및 의결
- 예산안, 공공채무관련 법안(특정지역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하원에서 먼저 심의)
- 탄핵소추 제기권

4. 지방행정

가. 기본 행정단위(지방자치단체장은 3년마다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2차 중임까지 허용)

- 79개 주(Province)
- 14개 시(City)
- 1,496개 읍(Municipality)
- 41,945개 동(Barangay)

나. 13개의 지방구역(Regions)

- 중앙정부가 행정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행정단위는 아니며, 지방행정단위는 상기와 같이 주, 시(읍), 동으로 되어있음.

라. 지방의회(3년마다 선거로 선출)

- 주 의회(Province Board) : 10명 내외의 의원으로 구성
- 시-읍 의회(Council) : 10명 내외의 의원으로 구성
- 동 운영위원회(Barangay Council) : 6명의 의원으로 구성

□ 경제 부분

1. 경제 개관

가. 경제구조

- 아세안 국가 중 발전속도가 늦은 편으로, 아래와 같은 경제사회 발전 장애요 소 상존
 - 열악한 인프라 및 산업기반
 - 극심한 빈부격차(15대 명문가족이 국부의 50%이상 점유, 연소득 270불 이하 극빈층이 약 35%)
 - 낮은 농업생산성(노동력의 1/3이 농업에 종사하나, GDP중에서 농업의 비중은 15%에 불과)
 - 낮은 저축률(2002년 26%)
 - 높은 인구증가율(년2.3%) 및 실업률(11.8%)
 - 정부 부패 및 무능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자

- 상기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자연자원(매장량 세계 8위), 영어사용, 저렴한 인건비 및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자 해소 노력을 감안 시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05년	2006년	비 고
GDP	984억불	1,169억불	
GDP 성장율	4.97%	5.37%	
1인당 GDP	1,153불	1,344불	
수출	405억불	462억불	
수입	477억불	531억불	
인플레이션	7.6%	6.2%	
실업율	8.7%	7.9%	

■ 필리핀 경제개발 방향

- ▷ 아로요 대통령이 2004.6.30 대통령에 당선, 취임하면서 2004~2010년까지의 중기개발 계획(2004~2010)을 발표
- ▷ 개발목표별 주요내용
 - 경제성장 및 직업창출 : 무역투자증대, 농업분야 고용창출, 환경 및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디지털인프라 향상, 정부회계의 건전성 확보, 재정관리 투명화 등 에너지 자립, 전력부문개혁
 - 인간기본욕구 충족 및 사회정의 실현 : 생계유지 지원, 빈곤층 삶의 기반 마련, 자산개혁, 선거사무자동화, 평화프로세스 구축, 시민혁명(EDSA)의 상처 치유, 법치주의 구현 등
 - 교육 및 청년의 기회 확대 : 기초교육 강화, 기술직업교육 및 훈련강화, 과학기술분야 육성, 문화발전 추진 등
 - 반부패 및 올바른 국정운영 : 부패행위 처벌강화 및 반부패분화 정착, 관료주의 개혁, 국방부문 개혁, 국제정세에 신속 대응하는 외교정책 추진, 헌법개혁 등

□ 한국 - 필리핀 관계

1. 조약체결현황

체결연월일	협정 사항	비고
1960. 11. 11	비 이민 여권의 사증수수료면제 각서	
1961. 1. 1	소포우편협정	
1961. 2. 24	무역협정(1964.8.8 개정)	
1969. 8. 11	항공운수협정	
1970. 9. 1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각서	
1973. 4. 27	문화협정	
1978. 11. 6	무역협정(1961 및 1964년의 무역 협정 대체)	
1985. 6. 13	경제기술협력협정	
1986. 8. 12	과학기술협력협정	
1986. 11. 9	이중과세방지협정	
1991. 1. 30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 협정	
1993. 5. 25	범죄인인도조약	
1995. 5. 12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 협정	
1996. 9. 25	투자보장협정	
2003. 6.	형사사법공조조약 (미발효)	
2005. 12	사회보장협정 (미발효)	

2. 경제.통상관계

가. 수출입

○ 한국의 對필리핀 무역 동향 (단위 : 백만불 %)

- 1993~1997년간 연간 30%의 급속한 수출증가를 보였으나 1998~2000년간 9%수준으로 둔화되었으며, 2001년 세계경제 침체의 여파로 수출이 대폭 감소하였다가 2002년 이후 회복 추세

- 양국은 상호 주요 교역대상국(2004년 기준)

▷ 한국입장에서, 필리핀은 제18위 교역대상국 (수출대상국 14위, 수입대상국 24위)

▷ 필리핀입장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에 이어 제9위 교역대상국 (수출대상국 9위, 수입대상국 7위)

○ 우리나라의 對필리핀 품목별 수출입실적

- 수출주력 품목은 반도체 부품, 휴대전화 등 전기, 전자제품이 주종이며(54%), 수입 역시 반도체 부품 등 전기, 전자 제품이 압도적(72%)

3. 인적교류

가. 필리핀 방문 한국인

- 2007말 653,000명

2006말 572,000명

* 제1위의 관광객 송출 국가

나. 한국 방문 필리핀인

- 2007년 73,122명

- 한국내 필리핀 체류자 : 51,000명

※ 이중 15,000명 가량이 불법체류

4. 한인사회

가. 한인사회 현황

① 현황(2007년 10월 현재) : 약 86,800여명(단기체류자 포함시 10,000명으로 추정)

- 유학생.어학연수생 약 24,000여명

- 선교사:약 2,000여명

② 최근동향

- 1990년대 들어 한국대기업의 직접투자 및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증가에 따라 동포수 급증 시작
-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소자본 개인사업자들의 유입이 급증하고 유학생 및 관광객의 급증에 따라 한국인 관련 각종 사고 빈발 추세
- 2000년대 들어 선교사, 유학생, 관광객 급등으로 동포사회가 급격히 팽창
- 최근에는 자녀유학, 영어연수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이 급증

나. 한인학교

①주필리핀 한국학교(토요학교)

- 1970. 8. 16 설립
- 교 장 : 안경애
- 학생수 : 325명
- 교원수 : 36명

② 한국 아카데미(정규학교)

- 1994. 6월 개교
- 교 장 : 차훈
- 학생수 : 68명
- 교원수 : 41명

- ③ 여타 주말 한국학교로 필리핀 남부학교, 한국 쉐마학교, 바기오 한인학교, 엔겔레스 한인학교, 세부 한글학교, 다바오 한글학교, 마닐라 구세군, 카비테 한글학교, 수빅 한글학교, 글로벌 크리스찬 아카데미 및 팔라우 한글학교

다. 한인단체

① 재필리핀 한인회 (United Korean Community Association Inc.)

- 1968. 3월 설립
- 회원수 :약 10,000명

② 재필리핀 한국 부인회

- 1977. 12. 15 설립

- 회원수 : 약 800명

③ 재필리핀 선교단체협의회

- 1986. 12월 설립

- 회원수 : 400명

④ 교포무역인협의회

- 1990. 11. 30 설립

- 회원수 : 30명

⑤ 지상사협의회

- 1989.12.21 설립

- 회원수 : 39명

⑥ 한인상공회의소

- 1994. 10월 설립

- 회원수 : 200명

⑦ 민주평통자문회의 동남아협의회

- 회원수 : 20명

⑧ 재필리핀 학생협의회

- 1997년 설립

- 회원수 : 100여명

⑨ 지방한인회

- 바기오(회장 : 이준성), 앙겔레스(회장 : 김철호), 보라카이(회장 : 김용배), 세부(회장 : 전경출), 수빅(회장: 김진용), 팔라우(회장: 이철준)

5. 각종단체

가. 한·필 의원친선협회

- 1985. 6. 5 설립

- 회 장 : 이용희(우리당)

※ 필.한 의원 친선협회 회장 : 공석

나. 한·필민간경제위원회(The Korea-Philippines Economic Council)

- 1978년 설립

- 한 국 측 회장 : 김희용 동양물산기업(주) 부회장

- 필리핀측 회장 : David Balangue 공인회계사

다. 한·필자원협력공동위원회(The Korea-Philippines Joint Committee for Mineral Resources Cooperation) - 1983년 설립

- 한 국 측 : 통상산업부 - 필리핀측 : 환경.자원부

6. 필리핀의 한국전 참전

가. 참전기간 : 1950.9.19-1953.5.13

나. 총인원 : 7,148명(총 5개 보병대대가 1개 대대씩 교대 참전)

다. 전사상자

- 전사 : 112명 (부상 299명)

- 실종 : 57명(이중 41명은 포로교환으로 송환)

라. 울동 전투

- 철의 삼각지대에서 중공군 1개 대대규모를 격퇴

- 제10보병대대Dionisio S. Ojeda(생존) 중령이 전과를 올림

마. 참전용사회(Philippine Expeditionary Forces to Korea or PEFTOK)

- 1959.7.15 설립

- 참전자중 현 생존인원 약 5천명으로 구성(Ramos 전대통령 참전)

- 회장 : BGen (Ret) Victorino T. Azad

□ 메트로 마닐라

마닐라는 루손섬 남서부에 있는 필리핀의 수도이며, 마닐라가 메트로 마닐라로 불리는 이유는 하나의 행정 단위로 볼 때 메트로 마닐라가 공식 명칭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과 수도권 도시들이 인접해 있는 것과 비슷하다.

마닐라를 주변으로 한 수도권 인구수는 1200만 명이 넘을 만큼 대도시이지만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하다. 호화로운 고층빌딩과 주택가가 있는가 하면 동양에서 가장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 빈민층의 슬럼가도 있는 천태만상을 보여준다. 허나 이러한 것 또한 생동감 넘치는 도시라 생각되며 나름대로 매력도 느껴진다. 또한 천연의 항구 마닐라만의 동해안에 위치하는 대도시 마닐라는 필리핀의 정치,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아시아의 모든 도시 가운데서 가장 활기차고 유럽적인 도시의 하나이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항만으로 일컬어지는 마닐라 만에 임한 항구도시로서 시가지는 파시그 강을 끼고 그 남북으로 펼쳐진다. 마닐라 항은 파시그 강 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항과 남항으로 나뉘며, 내항선과 외항선이 접안한다. 북쪽에는 비옥한 중부의 루손 평야를 남쪽에는 남부 루손의 화산성 저지를 끼고 있다.

메트로 마닐라를 가로지르는 파시그 강과 바다가 만나는 삼각주에 남아있는 성곽도시인 인트라무로스(Intramuros)와 도시의 방어를 위한 산티아고요새(Fort Santiago)는 이 도시의 오랜 식민지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불타는 듯한 마닐라만의 일몰을 보며 동서양이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메트로 마닐라이다.



마닐라 시청을 방문하여 메트로 마닐라시에 대한 기본현황 주요시정방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수단의 주요 역할 분야인 농업 및 문화관광 분야에 대하여 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감사의 표시로 기념품 증정 및 기념촬영

II. 본론

<농업분야>

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지구촌 식량위기의 우려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좁은 국토와 농촌인구의 급감, 쌀 시장 개방 등으로 곡물 전체 자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9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6위인 한국 농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천혜의 기후조건으로 한때 쌀을 수출했던 필리핀이 세계적인 쌀 수입국으로 전락한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좁은 농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식량안보의 마스터플랜을 강구하여 향후 국가존재위기로까지 파생될 수 있는 국제곡물파동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농업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자 한다.

1. 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국제 쌀 연구소)

가. 기본개요

- 위 치 : 필리핀 마닐라 남쪽 바뇨스 시
- 시 설 : 5개 연구동 등 13개 건물
- 재 정 : 40개국 연간3천만 달러
- 연구원 : 전 세계 전문가 900명
- 보유품종 : 10만7천종



<IRRI 전경>

나. IRRI 활동 및 연구현황

IRRI는 1960년 미국 록펠러재단과 포드재단이 녹색혁명을 기치로 기금을 투자해 필리핀대학 캠퍼스 인근 7ha규모의 실험농지로 문을 연 이후 현재 252ha규모로 성장했으며 열대기후지역이라 연중3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리핀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10년 만에 개발할 품종을 3년 만에 만들어 낼 수 있을 정도로 실험 기회가 많은 기후적 장점이 있다. IRRI 설립 초창기 녹색혁명 계획은 전 세계 벼 농지의 55%에 달하는 관개 답의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증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10년의 연구 끝에 1976

년 미국·인도·중국 등 6개국 13개 품종을 교접시켜 완성해낸 IR36품종은 불과 107일 만에 성숙될 만큼 조기수확이 가능하고, 또한 병충해에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경제성이 높아 기적의 쌀이라 일컬어지며, IRRI는 지난1960~1970년대 배고픔의 상징이었던 보릿고개를 해결했던 통일벼 품종이 개발된 곳이라 한국과는 친숙한 기관이기도 하다.

당시 식량증산에 사활을 걸었던 정부의 특명을 받은 연구원들이 다수확품종인 열대 인디카(안남미)벼의 유전자를 자포니카(일반벼)벼에 넣어 만든 것이 “밀양54”와 “수원290”등 이른바 통일벼들이다.

IRRI는 현재 세계 각지에서 모인 900여명의 두뇌들이 경쟁적으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 40여 개국의 세계은행과 국제농업연구협의단 등 국제기구로부터 연간 3천만 달러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쌀 생산국에 대한 기술지원은 물론 인류의 기아해결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국에 현지사무소를 설치하고, 각종 연구사업의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도 국제적으로 정치적 타협만 성사된다면 기술지원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IRRI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거나 존재하고 있는 12만 여개 벼 품종 가운데 10만 7천여 종을 냉동보관하고 있으며 새로운 품종 육성은 물론 각종 재난과 재앙으로 인한 인류의 식량부족상황에 대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증산을 위한 다수확품종개발에 매진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친환경농법은 물론 비타민이 함유된 쌀이나 다이어트 쌀 등 기능성 품종연구에 방향이 맞춰지고 있으며, 향후에는 비만이나 당뇨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특수 품종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 IRRI에서 연구 중인 벼 개량품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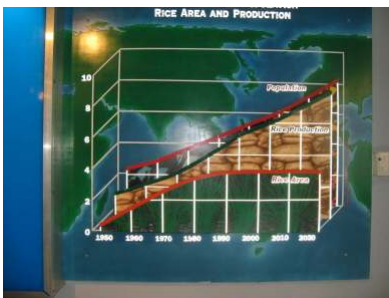


< 국제 식량위기와 IRRI 쌀 연구 과정에 대한 강의 >



<세계 인구수와 토지 지수>

세계인구(6,665,442,244명)와 경작할 수 있는 토지(8,559,084,011 ha)의 상관관계를 실시간 표시하는 시스템으로 미래에 다가올 지구촌 식량문제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



< 세계 곡물 생산량 >

세계 인구수(윗쪽 빨간선)와 토지(아래쪽 빨간선)사이에 곡물 생산량이 표시되고 있다.

세계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는 대신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량은 정체되어 있어 토지단위면적당 생산성 향상으로 근근이 지탱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 세계 각국의 농기구들 >

세계 각국에서 곡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기구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농기구는 국가별 주요곡물과 기후조건 등에 따라 다양하다, 지구촌 영농역사의 변천사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한국의 농기구도 많이 있다.



< 쌀을 재료로 한 식품 전시 >

세계 각국의 쌀을 재료로 한 다양한 식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쌀을 이용한 식품개발을 통하여 지구촌 식량공급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한국농업실정에서 보면 더욱 활발히 추진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2. 국제 곡물시장의 이해

세계인구의 약 15%이상이 만성적인 영양결핍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세계 식량생산이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다. 잘못된 식량분배가 식량문제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우선 식량의 남북문제의 심각성을 들 수 있다.

대체로 선진국(북)은 곡물의 수출국이고, 개발도상국(남)은 수입국이다. 선진국 사람들은 포식을 하면서 비만을 걱정하는 반면에 저개발국 사람들은 절대적인 식량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대략 전세계인구의 4분의1이 점유하는 선진국이 세계곡물 생산량의 절반을 소비하고 있다. 저개발국의 국민은 곡물을 빵이나, 면류의 형태로 직접 섭취하는 것에 반해 선진국의 국민은 곡물을 가축에 먹여서 육류나 유제품의 형태로 섭취한다. 미국 국민의 1인당 곡물소비량은 저개발국에 비해 약4배에 달한다.

선진국에서는 식량이 과잉 생산되어 그 처분에 어려움을 겪지만 이것을 저개발국에 나누어주기 보다는 생산 감소로 해결하려고 한다. 특히 GATT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선진국들은 과잉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가격지지와 같은 생산자극적인 농업보조금을 삭감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세계 곡물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급자의 과점시장의 문제이다. 곡물 수출국은 소수인 반면에 수입국은 다수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 곡물수출량의 절반은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기본적으로 자국민이 소비하고 남은 잉여 부분을 외국에 수출하는 한계 무역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우리나라에서 주식으로 하는 쌀의 경우이며,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쌀의 양은 전체 쌀 생산량의 3~5%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쌀의 90%는 인디카 계통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자포니카 계통의 쌀의 국제교역량은 연간 150~200만톤으로 우리나라 연간 소비량의 3분의1에 지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염려되는 부분이다.

3. 필리핀의 토지개혁과 토지소유의 특징 - 한국과의 비교 -

필리핀은 농업에 적합한 기후와 풍족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 제1의 쌀 수입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고 인구대비 한계적 토지를 보유한 한국농업의 효과적인 토지법령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필리핀 농업이 농업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식민지시기의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 및 역할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다.

미국 식민지에서 지주들의 가혹한 착취는 농업생산성 증대를 방해하는 주요한 원인이며, 필리핀의 농민은 지대부담 외에도 한국농민과 비할 바 없이 많은 것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농민과 지주 간의 힘의 차이와 관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10년대 초 필리핀은 자작농의 비율이 한국보다 크게 높았다. 그렇지만 개항 이후 상업적 농업이 발전함에 따라 한국의 농민들은 이에 적극 대응하였고 이에 따라 식민지배 이전에는 농민적 토지소유가 강화되고 있었다. 때문에 제국주의 지배 하에 들어갔다고 해서 농민들의 지주에 대한 교섭력이 일거에 붕괴되지는 않았고 식민지배 말기에 보다 열악한 정을 소작제로의 회귀도 저지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힘의 차이는 경제력 외에도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정치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필리핀의 지주는 미국의 지배 초기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기는 하지만 정책결정에 참여했고 1910년대부터는 의회를 장악했다.

의회는 총독과 미 의회의 통제 하에 있었지만 식민지기 초기에 지주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토지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더욱이 1935년 컴먼웰서의 자치제의 실시는 미국의 지배를 부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식민지 국가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필리핀의 지주들이 미국과 국가권력을 분점하면서 대토지를 확장했던 데 비해 한국의 지주들은 국가권력의 분배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한국에서도 지주들이 토지를 확대했지만 필리핀처럼 전에 없던 택지대금을 부과하거나 집을 불태우거나 추방하고 토지를 무력으로 강탈하지는 못했다. 필리핀의 지주 쪽이 한국의 지주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농업정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은 필리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규모적인 농업개발을 추진하지 않고 자유무역 하에서 미국의 개별자본을 유입시킴으로써 자국에 필요한 작물생산의 증대를 의도했을 뿐이었다. 따라서 필리핀 농업의 기술진보는 보잘 것 없었다. 특히 미작부문에서 판매 비료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관개시설 및 품종개량에서 큰 진전이 없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산미증식계획으로 토지개량과 농사개선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즉 1920년대에 추진된 관개시설의 개선을 기반으로 미작에서의 다수량 품종의 보급과 금비 소비의 증가효과가 결합되어 1930년대에 지속적인 생산성 증대를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일본질소의 진출에 따른 비료공급의 증가는 노동집약적 농업기술체계를 바꾸지 않고도 농업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1930년대에 총독부가 실시한 농산어촌진흥운동과 함께 농민이 우량품종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갔다. 즉 식민지기 한국의 농업이 빠른 생산성 증대를 달성했던 것은 농업 내부의 조건과 총독부의 정책에 따른 결과였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었던 농민 혹은 농업의 역량이 양 지역의 양상을 바꾸어 간 원인이었다 할 수 있겠다.

필리핀에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이 전개되면서 본격적으로 농민계급이 몰락한 반면 지주세력은 1935년 이후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했다. 그리고 1946년에 독립한 필리핀은 1946년 쌀분익소작법, 1954년 농업소작법, 1955년 토지개혁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제 점령기에 항일인민군으로서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후크발라하프의 토지개혁 요구가 농민의 광범한 지지를 얻는 것을 분쇄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1963년 농지개혁법, 1972년에도 농지개혁법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지주소작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독립 이후에도 토지개혁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소작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식민지 하에서 대토지소유의 확장과 더불어 미국과 국가권력을 분점할 수 있었던 지주세력의 강인성 때문이다.

필리핀 지주들은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국가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의 토지개혁조치 무산시켰다. 최근까지도 100대 가문이 전국토의 절반을 지배하고 60대 가문이 기업을 지배한다는 지적은 식민지기로부터 유래된 극단적인 분배의 불평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농지개혁 후 1960년 한국의 자작농은 73.6%로서 통계적으로 양국의 농업종사자 구성이 완전히 역전되어 나타난다. 즉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작농체제가 확립되고 계급으로서의 지주세력이 소멸된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주가 국가의 경제정책에 개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으며, 자작농들의 지지 위에 국가는 자율성을 확보하여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비해 토지개혁에 실패한 필리핀은 끊임없이 반정부와 반체제세력의 공격에 시달리고 경제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자도입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필리핀은 외자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사회불안은 다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2차 대전 후 한국과 필리핀이 보여준 경제성장의 극적인 역전 드라마의 배경에는 토지개혁의 성공여부가 잠재해있었던 것이며, 이러한 토지개혁의 성과에는 식민지기의 토지 및 계급구조의 차이가 크게 작용했다. 따라서 식민지기에 형성된 대토지소유 및 지주소작관계가 토지개혁에 미친 영향과 독립 후 토지개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 및 토지개혁 성과에 대한 비교검토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4. 한국 농업의 현실

한국농업은 국토의 3/4이 산지인 척박한 자연환경과 과밀한 인구에 따른 농업의 영세성,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 속에 지속적인 이농현상, 가중되는 농산물 수입개방화 압력 등, 갈수록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며, 그렇기에 또한, 농업구조의 전환기에 처해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미 국부는 세계 13위권으로 선진국 그룹에 들어갈 단계에 놓여있고, 농촌인구는 총인구의 10%에 머물게 되어 어느 농촌이던지 60대 이상 노인들만 있는 풍경은 이제 흔한 모습이 되었다.

이 땅에 농업이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위기상황에서도 농업은 채산성을 맞출 수 없는 사양산업으로, 매도되기도 하며, 국가정책 또한, 단지 농가소득의 개선에 맞추어서 농업인을 위로하는 정책이 쏟아지고, 농업인 역시 농가지원에 기대를 하며 안주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고 보면, 모든 것이 세계적 경제원리의 지배 속에 묶여버리는 것이 안타까운게 현실이지 싶다.

하지만, 농업은 단순히 경제원리에 입각한 1차 산업으로 보아서 안될 것이다. 최근 지구촌의 식량부족문제로 인하여 국가의 안위조차 흔들리고 있는 곡물 수입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5%에 불과한 것은 심히 우려할 일이며, 우리농업의 위기는 철저히 분석되어야 하며, 또한 현실성을 감안하여 미래지향적 농업으로의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라 판단된다.

한국 농업의 위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현시점에서의 농업위기는 농업생산의 농업경영인과 농가경제의 위기로 인해서이다. 개방농정이후 농업경영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경영의 불안정성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규모를 확대하는 일부 상층농에서도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농업노동력의 부족, 기계화에 따른 부담의 증가 등으로 그 경영은 불안

정하다. 이러한 위기는 농산물수입개방의 확대,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라 갈수록 커지고 있다.

둘째, 농업생산성의 위기는 농업위기의 큰 이유 중 하나이다. 농업생산력의 위기는 농공간의 생산력 발전의 불균형성이 심화되고, 나아가 농업내부의 생산력 전개에 심각한 불균등성으로 인하여 농업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농업생산력이 심각하게 정체되어 식량자급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노령화에 대응하여 농업기계화가 진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작규모의 영세성, 경지기반의 미정비, 분산착포제, 기계구입능력의 저하 등에 의해 기계화 자체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기계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세계 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곡물의 주요수출국과 수입국의 대처상황을 살펴보면 우리의 농업현실이 실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특히, 세계인구의 30억명이 주식으로 하는 쌀의 경우, 사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주요수입국에서는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유혈폭동사태까지 발생할 정도로 보면, 우리나라도 비록 쌀 파동의 영향권 밖에 있다고 하지만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쌀은 468만톤으로 총수요량 416만톤보다 많고, 공공비축용으로 69만여톤이 있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작금의 쌀부족 사태를 지켜본다면 안심할 처지는 아닐 것이다.

5. 마닐라 · 세부시 문화 관광자원

가. 리잘공원

필리핀의 국민적 영웅 호세 리잘을 기리는 공원으로 마닐라만 근교 로하스 거리에 있다. 호세리잘 동상은 공원의 상징이며, 기념탑 뒤에는 그가 처형당하기 직전 조국 필리핀을 위해 남긴 시 “나의 마지막 고별(mi ultimo adios)”이 세계 주요 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잔디밭과 수목이 아름답게 배치된 이곳은 시민의 휴식처로 원내에는 중국정원, 프라네타리움, 국립도서관, 지구를 본뜬 분수대가 있으며, 공원 동쪽의 인공호수에는 필리핀 군도 전체모형이 만들어져 있어 7107개의 섬으로 되어있는 필리핀 군도를 한눈에 볼수 있고, 공원 북쪽 수족관에는 아름다운 열대어를 구경할 수 있다.



나. 산티아고 요새

인트라무로스 북서쪽 파시그강 기슭에 위치한 이곳은 마닐라만을 살펴볼수 있는 전략상의 요충지로 스페인 군대의 사령부이자 감옥으로 쓰였던 곳이다.

성문을 들어서면 독립의 영웅인 호세 리잘에 관한 자료와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리잘 기념관이 있고 안쪽의 리잘 채플이라는 벽돌집에는 리잘이 스페인군에 의해 처형되기 전 감금당해 있던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북쪽 성벽에는 악명 높은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는데 지하 감옥은 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밀물 때는 천장까지 물이 차서 죄수가 익사하게 되어 있으며 시체는 문을 열면 파시그 강으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다. 2차대전 당시 파괴됐던 많은 부분을 1950년대 복원해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과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산티아고 요새내의 지하감옥>

< 산티아고요새 내 공원>

식민지 상태에서의 불운의 역사속의 산티아고 요새지만 필리핀 역사의 영웅 호세리잘의 민족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식민지의 유물인 산티아고 요새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다. Tagaytay (따가이따이)

팍상한과 비교되는 마닐라 근교의 관광 중심지 따가이따이는 카비테(Cavite)주에 있는 피서지로 팍상한과 나란히 평가되는 마닐라 근교의 관광 중심지이다. 해발700m이고 마닐라에 비해 매우 서늘하다. 이곳에는 따알 화산(Taal Volcano)과 그 주위를 둘러싼 따알 호수(Taal Lake)의 절경을 즐길 수 있다.



근처에는 조랑말을 탈 수 있는 곳과 식물원을 겸한 동물원이 있으며, 마닐라 시에서 차량으로 1시간 -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화산섬 안에 있는 분화구의 칼데라호(화산 분출 후 생긴 호수, 사진전경)를 보러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라. 팍상한 폭포

마닐라 동남쪽 105km지점에 있는 라구나주에 속해 있는 폭포로 최고 낙차가 100m에 이르는 팍상한 폭포는 세계 7대 절경의 하나에 속하며 필리핀을 대표하는 관광지이며, 폭포에 도달하기까지 계곡의 장엄한 경관은 너무 환상적이다

"지옥의 묵시록", "플래툰" 등 영화의 촬영지로 사용된 곳으로도 유명하며, 뛰어난 절경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의 영화와 톱 가수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더욱 유명해진 곳이다.



팍상한 폭포는 통나무를 깎아 만든 필리핀식의 보트를 타고 2명의 뱃사공과 2명 또는 3명의 관광객이 한배를 타고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며 즐기는 마닐라 주변 대표적인 관광지이며, 팍상한 폭포 관광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뱃사공의 노련한 몸동작에 있다. 실제로 이곳 팍상한 폭포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든 데에는 이 뱃사공이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명의 뱃사공이 각각 앞과 뒤에서 노를 젓고 때로는 물속에서 힘겹게 배를 밀고 당기며 안전하게 상류를 향해 거슬러 올라가면 뱃사공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된다. 그래서 중간쯤에서 만난 휴게소(일명 닭다리집)에서는 물어보지 않아도 음료를 준비하는 술선수범이 생긴다.

힘들게 손동작 발동작으로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고 또 새롭게 나타나는 절경은 관광객의 탄성을 자아낸다. 팍상한 폭포를 가는 동안에도 양쪽절벽에서 떨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의 폭포를 만날 수 있으며,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면 뗏목으로 갈아타고 폭포 속으로 들어가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색다른 체험도 할 수 있어 즐거움과 시원함까지 더해지는 곳이다.

팍상한 폭포 자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폭포와는 비교 할 수도 없지만, 팍상한 폭포만의 특이한 관광법과 정글 계곡이 함께 어우러져 멋진 조화를 이룬 관광지이며,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언뜻, 합천군의 황계폭포도 폭포수량만 확보할 수 있다면 그 위용이 막대한 폭포 자체에는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본다.



<막대한 폭포와 폭포아래쪽 계곡에서의 관광객>

마. 스파(Spa) 산업 (세부시)

스파 산업은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들이 관광업에 건강을 접목한 웰빙관광산업의 대표적 소산물이며, 각 국가들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면서까지 아시아 스파의 종주국임을 내세우고 있는 등, 스파는 관광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WTD)가 운동과 치료, 식이요법과 의료서비스를 통한 여행객의 신체적인 웰빙증진을 위해 “건강 스파”를 관광과 접목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고, 건강관광산업이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핀 관광청은 “여행”, “건강”, “웰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헬스 투어리즘을 적극 표방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세부에 위치한 상그릴라 막탄 아일랜드 리조트의 치스파(Chi Spa), 바디안 아일랜드 리조트 앤 스파(Badian Island Resort and Spa), 보라카이에 위치한 만다라 스파(Mandara Spa), 바탕가스의 더 팜 앳 산베니토(The Farm at San Benito)등이 선두 그룹을 형성하면서 필리핀식 스파산업을 선도해 오고 있다.

치스파는 전통중국의학과 히말라얀 치료법의 조화에 중점을 둔 전문가팀에 의해

개발된 치(氣) 테라피를 바탕으로 명성을 획득해 가고 있고, 바디안 아일랜드 리조트 앤 스파는 최근 아시아 스파 매거진에서 발표한 세계10대 스파 리조트 중8위에 랭크될 만큼 훌륭한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하는 곳이다. 또한 만다라 스파는 럭셔리 컨셉 아래 손님들의 철저한 프라이버시와 휴식을 제공하고자 어린 이들의 숙박은 거절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바디안 아일랜드 리조트 앤 스파는 바디안 만(漫)과 절벽사이에 위치하여 조용하고 아름다운 경치와 정해진 패턴을 따르는 기존 일반 마사지와는 달리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춘 고유의 스파 트리트먼트를 자랑하고 있다. 바디안은 딸라소 테라피 메뉴로 유명하다. 딸라소테라피는 해수에 함유된 미네랄과 다양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유럽에서 오랫동안 인기를 모아 온 스파 요법이다.

또 더 팜 앳 산베니토는 필리핀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필리핀식 메디컬 스파의 원형을 만들어 가는 곳이다. 이미 세계 무대에 알려질 만큼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메디컬 데스티네이션 스파로 성과를 축적해 가고 있다.

III. 결론

1. 한국 농업의 위기와 대처방안 연구

가. 한국 농업의 위기

국토 면적의 75%가 산지인 척박한 자연환경과 과밀한 인구밀도에 따른 농업의 영세성, 갈수록 심화되는 이농현상, 도시와 농촌간 소득불균형,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 등의 이유로 한국 농업의 현실은 실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한국 농업의 개방의 파고는 높아만 가고, 국내 농업의 경쟁력은 답보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개방이 확대될 경우 농업은 설 땅이 없다. 문제는 언제까지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협상에 따르는 개방 압력 때문만이 아니다. 경쟁력 없는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국제가격의 4~5배에 이르는 농산물을 무작정 애국심만으로 사 먹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이미 상당수의 농산물이 값싼 중국산 농산물로 대체된 게 현실이다.

농업정책의 초점은 이미 개별 농산물의 보호보다는 농촌을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농촌 개발 쪽으로 옮겨갔다. 농사짓는 일 외에 관광·서비스업 등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보조정책이 함께 따라 주어야 한다. 농산물도 가격이든 품질이든 외국산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정부의 보호에 기대던 시절은 갔다. 정부도 보호나 보상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환상을 키우지 말고, 농업의 위기상황을 제대로 알려 농민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농업은 공급과잉과 급속한 시장개방으로 존립이 더욱 위태로워질 전망이다. 수입농산물의 급증은 국내 농산물의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을 초래, 이로 인해 농가수지가 악화되고 결국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원자재 가격은 크게 오른 반면 국내 농가에서 생산되는 상당수의 농산물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농업 및 다른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 농업도 비즈니스 마인드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다행히 국내 농업의 척박한 환경에서 벤처형 농업의 새로운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창의력에 기초한 벤처형 농업이 바로 그것이다. 자연조건보다는 농업 종사자의 경영능력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생명공학·디지털·디자인·관광산업 등 첨단기술 및 주변의 성과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마케팅과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농업도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됨과 동시에 농업의 프론티어가 확장되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2. 관광자원의 활성화 방안 연구

가. 한국관광산업의 지역 활성화 정책 현황

중앙정부의 강력한 계획과 규제 하에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여 국가 전체적으로는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지방은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지역경제의 낙후, 지역산업의 불균형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활력이 매우 저하되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공단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업 유치, 각종 수익사업을 전개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인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도시권과 농어촌간의 여러 가지 불균형 요소를 시정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생활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정책 발굴 능력이나 주민의 참여도 또한 높지 않는 지자체의 현실에서 어떤 부

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과거에 지역발전을 위해 채택되었던 교육시설, 교통시설을 유지하는 전략은 지역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유용한 지역발전전략으로 활용될 것이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개발이익의 지역 외 유출, 지역 간 소득불균형 심화 등 부작용 노출이 적지 않았으며, 획일적인 공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고유의 특성과 잠재력이 무시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를 지역의 창조성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둔다면, 기본방향은 지역의 창의성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 즉, 거대 공업단지 건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정책 보다는 첨단기술, 디자인, 관광 등 소프트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의 문화, 자연, 환경을 고려하는 통합적이며 균형 있는 지역개발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역별로 정치, 경제, 사회적 부존자원의 격차를 무시한 채 모든 지역이 성장성이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 등 인기산업을 똑같이 유치, 육성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지역관광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개발방식에 따라 고용증대 효과, 소득유발 효과, 지방세수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지역 생활환경의 개선과 지역이미지 제고 등 경제외적 효과가 다른 어느 분야 보다 뛰어난 산업이다. 또한 개발 가능한 자원이 특정자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원조달이 어렵고 우수한 인력이 부족한 낙후지역에서도 지역산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나. 관광개발정책의 문제점

관광산업이 지역개발의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으며, 많은 경우 접근방식이 잘못되어 환경파괴,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다. 문제는 지역의 여건과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광개발은 부족한 외화의 획득수단으로서 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과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계획과 통제 하에 이루어졌으며,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관광개발은 거의 없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생활수준의 향상, 의식수준의 변화 등으로 국민관광이 활발해지면서 외화유치

차원의 국제관광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국민관광부문 진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9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전국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소규모 개발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토록 하고, 대단위 관광개발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되었다. 그러나 지자체의 관광지 개발은 그 내용 면에서 80년대의 대규모 리조트 또는 획일적인 국민관광지 개발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국민들의 여가수요 조차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의 유치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최근 ‘한국관광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감안하여 지자체, 민간기업 공동개발방식을 채택하고 민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장기적인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민간기업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대부분 청사진에 그치고 있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강력한 관광개발정책을 펼친 결과 관광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는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또한 대규모 민자유치에 의한 관광개발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개발 내용 면에서 획일적인 사업추진으로 그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개성 있게 담아내지 못하고 유사한 관광지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개발계획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배제되어 외부자본이 유입되고 개발이익 또한 대도시로 유출되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한 획일적인 관광개발업무나 단순한 인허가 업무에만 매달리게 됨으로서 지방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독특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자발적인 능력이 약화되었다.

넷째, 기존 관광정책은 관광객유치와 욕구충족에만 치중하였지 주민이해를 우선으로 하는 관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주체성과 특성이 무시되었다.

이처럼 기존의 관광개발정책은 중앙의 논리, 개발사업자의 수익논리, 관광객 우선 원칙이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을 가꾼다는 주민자치의 개념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존중되고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사회 문화적인 효과를 고려하는 관광개발전략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다. 새로운 지역관광개발을 통한 해결점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관광을 주요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광을 지방의 논리로 재인식해야 한다. 즉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하며, 자연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지역자본과 인력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국민들의 레저·관광욕구는 대규모 리조트, 콘도, 스키장 등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려는 욕구 또한 급증하고 있다. 어디를 가나 똑같은 획일적인 관광지를 벗어나 차별화된 관광지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중심 관광개발 또는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지역관광개발은 관광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과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성을 높여 지역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국내 관광개발 목표였던 국민관광진흥, 외화획득이라는 관광수요자의 이용편의 중심에서 벗어나 관광공급자의 복지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주민의 참여와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평가도 관광객 유인력이나 관광객수가 아니라 지역성의 표출, 지역주민의 개성, 지역주민의 자부심 등 공급자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지역관광개발은 기존의 대규모 개발과 중앙정부 주도형으로 인한 각종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파괴 현상에 직면한 관광개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관광개발이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지역개발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각종 농어촌 개발 사업,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을 관광개발과 패키지로 추진할 경우 지역 활성화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기존의 관광개발방법과 비교할 때 지역관광개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 개발목표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관광객 만족에 있으며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효과를 가져온다.
- ▲ 개발주체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중요시하며, 가능한 한 지역 내 자본으로 개발한다.
- ▲ 개발대상은 지역성(地域性)을 나타내는 모든 자원으로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역사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 ▲ 개발내용으로는 생산 및 생활시설의 확충, 특산품 개발, 이벤트 개최 등 지역의 고유한 문화, 산업, 자연 등 다양한 요소를 연계 개발하게 된다.
- ▲ 개발성격은 소규모투자를 장기간 계속하는 환경 친화적 개발로서 단기적인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 한다

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 개발 전략

1) 지역 잠재력의 활용

앞으로 지자체간 경쟁이 점차 가속화되어 지역성을 살린 차별화된 자원의 개발과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관광시설의 부족을 탓하기보다는 어느 지역이건 고유한 매력을 발굴하고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뛰어난 자연경관이나 환경이 없는 지역이라도 전원생활을 영위하는 농·어촌마을 자체가 도시민들에게는 신선한 관광대상일 수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도시와 떨어져 있어서라거나 특별한 볼거리가 없어서라고 막연해 한다. 그러나 있지만 잘 이용되고 있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위기

를 기회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낙후지역에서 관광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관건이 된다. 많은 돈과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개발에 성공할 수 있는 고유의 관광자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는 유무형의 문화재와 생활양식, 독특한 전통과 주거양식, 식문화 등 다양한 문화적 자원이 있다. 지역관광개발에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역사 및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자원목록을 작성하며 목록화된 자원의 가치와 매력을 발굴하여 관광활동의 유인요소로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자원 가운데서 개성 있는 테마를 발굴하여 테마박물관·전시관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2) 주민참여와 조직화

지역 활성화 사업에 있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자원과 전문 인력의 부족이다. 지금까지 재원확충방안에 관해서는 각종 기금과 민관합동개발(제3섹터) 등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인재를 확보하고 참여시키는 방안은 논의가 부족하다.

계획단계부터 주민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활용한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식은 보수적이며 폐쇄적이어서 이해조정과 합의 형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관광개발의 전문가도 아니며 경험도 전혀 없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민의 의식을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전환시키고 조직화하는 일이 과제로 부각되며, 이를 위해 지역 내 다층적인 시민단체와 민간조직(NGO)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들 NGO를 중심으로 프로젝트팀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관광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구성하여 관광시설의 개발과 운영을 해야 한다. 지역관광개발은 단순히 지역에 관광시설이나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자연 및 문화경관,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판매, 농촌의 일상생활, 문화활동, 지역이미지 등 각 부문의 다양한 요소와 이를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활동을 결합하여 관광 자원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의 여건에 맞는 운영규모와 적합한 체계를 갖출 때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룰 수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특히 젊은층의 지역 내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 향상이 요구되며, 지역 오피니언리더,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부문의 인재육성이 중요하다. 또한 특히 젊은층의 인구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후지역의 경우 지역 내 젊은층의 유출을 막으면서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지역산업과 관광의 연계

관광산업의 파급효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관광은 지역 내 다른 산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따라서 관광개발은 지역산업과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는 하나 지역의 경제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오히려 과잉시설로 인한 역효과와 지역산업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농업과 수산업 등 1, 2차 산업에 관광이라는 3차 산업적 요소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다. 낙후지역의 1차 산업과 관광의 결합은 도시인들이 농림수산현장을 방문해 과일, 야채, 임산물의 채취, 가축 기르기를 체험하거나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체험하는 것을 벗어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산물 등 상품을 개발하고 여기에 이벤트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관광산업과 지역산업, 관광개발과 지역정비, 관광시설과 지역 내 편익시설의 복합개발, 관광시설과 지역문화시설 등을 다양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자원부족을 극복하고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즉 공간의 다기능적 활용(mixed use)으로 새로운 시설 투자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4) 마케팅 지향적 개발

장중시적인 발상이 필요하며, 사전에 철저한 시장조사를 토대로 하여 주 이용

고객층(target market)을 설정하고 이들의 요구(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른바 4P전략 즉, 상품(product), 촉진(promotion), 가격(price), 유통(place)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특산품과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경쟁상품의 유무와 판로의 개척, 소비자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시장규모나 성격에 따라 차별화전략, 집중전략 등을 채택하여 시장의 우월한 위치를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새로운 사업분야를 추가하는 사업다각화 전략이 요구된다. 관광시설과 상품을 개발함에 있어 무엇보다 차별화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 지역의 문화, 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
- ▲ 지역의 저이용 자원을 관광자원화
- ▲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
- ▲ 대규모 시설정비보다 각종 프로그램개발(특산물, 향토음식의 관광자원화, 지역이벤트 창출) 등이 강조

또한 지역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예컨대 지역특산물의 개발, 지역진흥을 위한 관광지의 개발 시 지역의 독특한 지역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명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한다.

5) 마을단위 관광개발

현재 지역관광개발의 한 형태로 농어촌 휴양지, 관광농원 등이 개발되어 양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개발 촉진 등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자본을 가진 소수의 개발주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지역민의 생활공간과는 분리되어 외부자본의 유입을 야기하였으며,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없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개발함으로써 소득의 향상을 기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관광객 입장에서 지역민과의 교류, 지역문화 체험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지역관광개발의 공간적 단위를 마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을은 지역 공동체로서의 유대감, 정체성이 강하며 지역의 생활권이나 최소생산단위이다. 따라서 주민이 주체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단위이며, 관광객이 목적지로 인지하는 실질적인 단위가 되기 때문이다. 개별 마을들을 개성 있는 테마관광지로 개발하고, 각 테마마을을 지역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단일 관광권 또는 리조트 지역으로 개발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 관광개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개발재원의 부족, 전문가의 부족과 개발 및 운영관리상의 노하우 부족으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관광개발은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매력을 창조해 나간다는 원칙 하에 지역주민과 지역자본이 주체가 되고,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시설보다는 소프트웨어와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발해야 한다. 또한 마케팅기법에 의해 개발 컨셉트의 설정, 관광 상품의 개발 및 시장개척이 이루어지며, 공간적으로는 마을단위의 관광개발이 이루지고 이를 지역차원에서 기존의 리조트 및 관광지와 연계함으로서 지역관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화시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확보방안, 개발과정에 있어 주민참여방안, 개발주체의 설정방법, 그 지역만의 독특한 상품개발 및 마케팅방안에 이르는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관광산업의 육성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지역의 문화와, 민속과 자연과 음식 등 무한한 관광자원을 하나하나 꿰고 근사하게 다듬고 가꾸고 알릴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1965), {한국농정이십년사}.
- 대한금융조합연합회(1955), {한국농업연감}.
- 박섭(1996), [식민지기 한국의 농업성장(1918~1971)와 공업화], 김종현편, {공업화의 제유형(II)}, 67-109.
- 반성환(1974), {한국의 농업성장(1918~1971)}, 한국개발연구원.
- 우대형(1994), "일제하 [개량농법]의 보급과 농촌구조의 변화", 연세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1994년 6월) 외 다수